



국립극단
70

여기
연극이
있습니다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공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lab@ntck.or.kr

영지



국립극단
청소년극

우월컴투스 영지월드

남
에 아주
어둔 골목 끝에
빈집보여요? 그곳
이 내 비밀 공간
이에요. 그곳에 갈
때는 위치를 잘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다른 길로
갈 수도있으니까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불러서 보드게임을 하곤 해요."

비밀의 문
뒤, 어둡고 으스스
하며 나 혼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늘은 영롱한
데 고철덩어리와 귀신, 영혼
이 많아요. 긴치마 장옷을
입고 작은 단검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에선
엄마, 가족, 이 세상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만 도깨비는
관람아요.

누구라도 들어와도 되지만
이 말을 듣게 될 거야.
"침대에서 놀아!"

"와, 정말 그리고, 독재 하고, 유튜브랑 웹툰 보는 거야"

내 비밀공간은 창고지하.
네온사인으로 꾸며져 있고,
미니 소파와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게 가득해요. 비밀
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안 되고요.

"나!?! 떠났다?!"

안녕, 영지야

웰컴 투 영지 월드

자료 정리 및 해석, 글
손서희 / <영지> 예술교육 리서처

-십대 초반 청소년들의 ‘자기 공간’ 설문에서 드러나는 일상과 상상

1. 리서치의 취지와 개요

- 2020 <영지> 예술교육팀 청소년 리서치에서는 12~13세 십대 초반 청소년이 상상하는 ‘자기 공간’에 대한 질문을 통해, 청소년의 내면과 관계, 행동과 일상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19~2020년 <영지> 창작과정에서 예술교육팀이 진행한 청소년 설문 중,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83명의 답변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경향성과 특징을 해석하였다.
- 본 설문은 정량적 결과보다는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실제 언어를 포착하기 위해서 서술형 주관식 설문으로 진행했기에, 답변의 빈도와 소수 답변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자료를 시각화했다.

2. 설문 및 자료 분석 대상

- 2019~2020년 초등학교 5~6학년 183명 (경북초, 관문초, 부천양지초, 우면초, 태강삼육초)
 - 2019년 초등5학년~중2학년 총 230명에게 진행한 설문(2019년 3월) 중 ‘자기 공간’과 관련한 항목과 초등5~6학년 설문을 중심으로 자료 정리
 - 2020년 부천양지초 5~6학년 49명에게 온라인으로 추가 설문 진행(2020년 4월)
 - 작품 속 등장인물의 연령에 가까운 십대 초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19년 설문 대상 중 중학생의 답변은 이번엔 다루지 않았음.(5학년 58명, 6학년 125명)

3. 설문 내용

- 청소년들이 ‘나만의 비밀 공간’을 상상해 볼 수 있는 10개의 세부 질문들을 던져 그 안에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자기 공간의 이미지, 타인과의 관계, 공간 속 행동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욕구와 지향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10개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각 항목의 답안은 유형을 발견하여 분류하였다.
- 공간의 특징: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이미지인지?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공간에서 하는 일? 공간에 들어가는 방법? 공간을 방어하는 방법?
 -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계: 나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존재)과 금지된 사람(존재)은?

4. 리서치의 한계와 유의점

본 리서치는 2019년 <영지> 창작과정에서 ‘십대 초반 청소년들의 자기 인식’을 주제로 총 5개 영역,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내용 중, ‘자기 공간’에 대한 2개 영역 10개 질문만을 다루고 있다. 설문 원본의 전체 구성은, 질문들을 차례로 거치면서 응답자의 사고와 상상의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자기 공간’에서 ‘자기 인식’의 심화된 주제로 다가가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리서치에서는 ‘자기 공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유형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일상과 상상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의미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자료에서 드러나는 개인별 답변 흐름(횡적 흐름)과 학년별, 성별, 지역별 특징(종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십대 초반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나 되지만 아무도 안 돼요. 가족은 환영이지만 부모님, 동생, 언니는 출입금지!

그림의 어느 쪽이 ‘나만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일까?

왼쪽 반원이다. 그리고 오른쪽 반원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존재들이다. 가족, 친구는 들어와도 되고, 벌레,

나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출입금지라는 눈에 잘

띄는 답안 외에 사이사이 박혀 있는 글자들에도

주목할 수 있다며 좋겠다. ‘늬’, ‘회귀한 생명체(는

허용)’라는 답은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자에

담겨 있지만. ‘가족들 중 언니만’, ‘6학년

여자어린이들은 다 됩니다’라는 답도 있다.

출입금지 항목에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양쪽에 동시에 엄마, 아빠가

적지 않은 비중으로 있다는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양쪽 모두에 ‘아무도’와 ‘아무나’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도 이들 답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2020년 <영지>의 공간에는 누구인지 서로 알긴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희와 효정이

방문한다. 그리고 셋이서 함께 동네 사람들을 ‘소환’한다. 공간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과 불청객들이

뒤섞여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어진다. 설문에 답해 준 청소년들의 답변에서도 그런 혼재로 인한 혼적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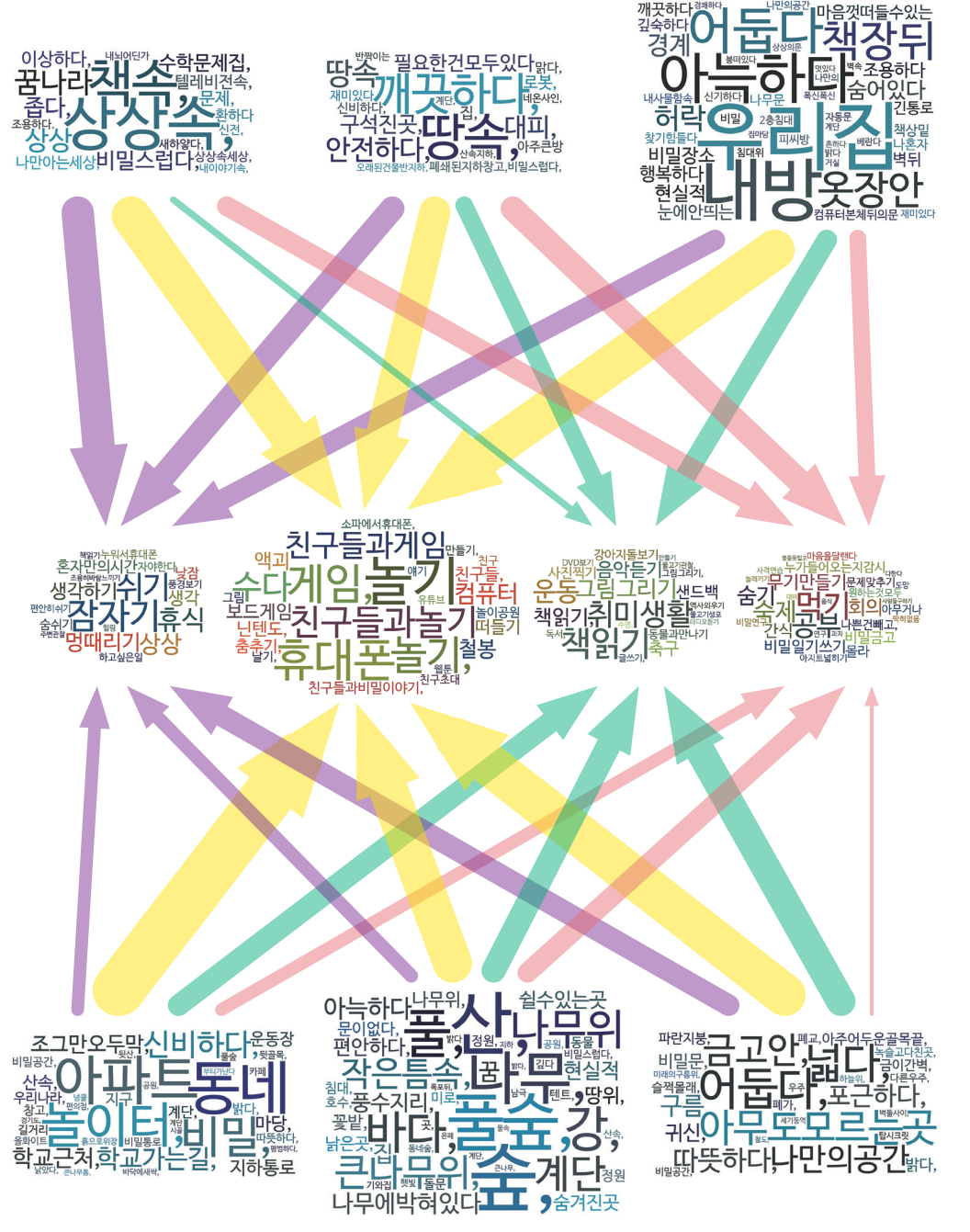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만의 공간은 우리 동네에, 내방에. 아니면 땅 속에, 숲속에, 너의 마음 속에

다음 장의 자료는 ‘나만의 공간이 어떤 곳에 있을지’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다. 상상 속(15명, 이하 복수답안 포함), 지하(28), 우리 집(82), 동네(32), 자연(63), 기타(23)의 답 중에서 ‘내 방’, ‘우리 집’, 그리고 ‘집 근처’나 ‘동네’에 있을 것이라는 답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약 46%)에 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방 침대 밑이나 책장 뒤에 안 보이는 비밀의 방과, 출입 장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고 부연되어 있다. 편안하고 친숙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말로, 아무도 모르고 비밀스러워야 한다는 공간의 조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정반대로 외따로 떨어져 있거나 힘들여 찾아가야 하는 자연, 숲 속, 산, 큰 나무 등에 있다는 답과 지하 세계에 있다는 답도 합치면 37%가깝다. ‘수학문제집 속’, 평행우주, ‘너의 마음 속’에 나의 비밀 공간이 있다는 소수의 답들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한눈에 담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눈에 띄면 안 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때로는 5차원에 있고 플라즈마가 떠다니기도 하는 나만의 공간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대다수는 놀기, 휴대폰, 게임, 그리고 잠자기, 쉬기이다. 심지어 ‘약간의 공부’까지. 일상적인 일들을 간섭 없이,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한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풍경을 관찰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다는, 적지않 적지 않은 답안도 소홀히 볼 수 없다. 물론 비밀 공간의 위상에 걸맞게 비밀연구나 비밀회의,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 임무나 영웅 옷을 입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도 벌어진다.

[그림] 십대 초반 청소년의 자기 공간 이미지와 공간 내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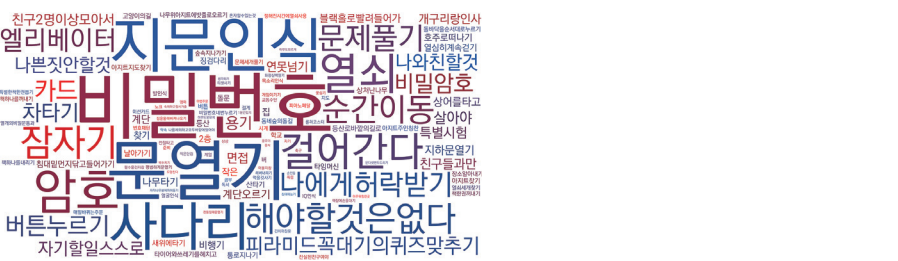


※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이 자기 공간(상,하 6개 항목)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운데 4개 유형)를 묻고, 활동에 대한 4개의 유형별 답안을 색깔로 구분하여 연결하였음. 연결선이 굵을수록 다수의 답변임.

십대 초반 청소년의 공간과 내면 속 일상과 상상

‘나만의 공간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단단한 보안을 자랑한다. 지문, 얼굴, 손글, 발까지 온갖 인식 절차를 거쳐, 수차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답에서 그보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주문, 숨어 있는 곳이니 길을 잘 찾아와야 한다는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한 이동수단과 갈림길을 발견하고 적합한 문을 열어야 한다. 일상적이리라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야 하거나 작작나무 불에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버스를 타거나 계속 잘 걸어가면 된다고 답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나만의 공간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도,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지극히 일상적인 대응 속에서 ‘기계보호막’과 ‘어린이들의 머리를 이용한 센서’를 작동시킨다는 답을 함께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나만의 공간’에 대한 모든 답 속에서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일상적 세계와 판타지적 상상력이 학생들 개개인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답에서 공간에 일상과 상상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갖 환상적 경험을 거친 끝에 들어간 곳에서도 휴대폰으로 웹툰과 게임을 즐기고 과자를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동네 회색 창고 문 뒤에 숨어있는 평범하고 눈에 안 띄는 공간은 사실 열어놓고 보면 내온으로 반짝이는 안락하고 예쁜 곳이다.

이번 설문에서 십대 초반 청소년들이 보여준 공간에는 일상과 상상이 서로 스며들어 있다. ‘나만의 비밀 공간’을 상상해 달라는 질문에 이들은 잘 꾸며진 안락한 건물이나, 자신의 내면과 관계에 대한 시선을 비추어 ‘내 마음의 방’ 한구석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면데면한 사이였던 소희와 효정이 스며들 듯 영지의 공간에 들어와 세 사람이 함께 놀고 현실을 소환하며 벌이는 일들은 12~13세의 십대 초반 청소년들이 답해준 ‘자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과 나란히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소희와 효정이 찾아온 공간은 결국 그들 자신의 공간, 자신의 내면일지도 모른다.

워드클라우드 이미지

copyright 2020 tagxedo.com

설문에 참여해 주신 183명의 영지들에게 감사합니다.

[2019년] 관문초, 경북초, 우면초, 태강삼육초 5~6학년 134명

[2020년] 부천양지초 5~6학년 49명 / 협력교사 김은빈

즐거리

아이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마녀, 병목한 아이들이 절대 조심해야 할 괴물 영지의 아지트에 학원 봉고차를 놓친 모범생 소희와 더 이상 창피한 노래를 부르기 싫은 효정이가 들어온다.

“어른들이 하도 영지, 영지 하길래 이상한 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이상해?”
“아니 엄-청 이상해.”

소희와 효정은 영지가 소문의 ‘그 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지트를 나가려고 하지만, 웬일인지 나가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 영지는 소희와 효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녀는 동안 점점 영지의 매력에 빠져 들어간다. 그때, 영지는 마녀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소희와 효정은 점점 더 영지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누구보다 신나게 놀기 시작한다. 기묘한 존재들, 악마선생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데, 그때 광광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A rumor has it that Yeongji is a witch who makes other children go batty, a monster that children must avoid. One day Sohui, a model student, misses the shuttle bus to her afterschool class, and she ends up walking into Yeongji's secret hiding place with Hyojeong who no longer wants to sing silly songs anymore.

“Because grownups keep mentioning your name, I thought you were really weird.”
“You don't think I'm weird then?”
“No, I think you are super weird.”

When Sohui and Hyojeong find out that the person they are seeing face-to-face is the very Yeongji people have been talking about, they try to leave her secret hiding place only to realize the door won't open. Yeongji starts to tell them stories, and while listening to them, Sohui and Hyojeong become entranced. Yeongji begins a new story and this time it's about a witch, and Sohui and Hyojeong find themselves mesmerized by Yeongji's world and have the most fun they have ever had. They even meet mysterious people and demon teachers. All of sudden, however, they hear a loud knocking sound: bang-bang-bang.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Who could it be?

국립극단 청소년극

2020 영지

작

허선혜

연출

김미란

공연 기간

2020.5.22(금) - 2020. 6.14(일)

공연 장소

백성회장인호극장

추회/제작

국립극단

출연진 소개



영지 Yeong-ji

박세인 Park Se-In

연극 <뽀샤인의 전사들> <폭면시대> <살기로운 생활>
<파란나라> <이사할 때 버리는 것들> <구직> <안전가족> 외



소희 So-hui

경지은 Kyung Ji-eun

연극 <스탠드업_그라운드업> <목적지수> <녹색광선> <사막 속의 흰개미>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고등어> <테리러 와 쥘> <변신이야기> 외

2



악마선생 Ms.Devil

전선우 Jeon Seon-woo

연극 <Das Orchester> <낭독의 목적> <천국호텔>
<터무니있는 연극-부평편> <달랑한 줄> (2019 영지)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빨 줄 알았지> <파트너> <여름에 하는
연극> <원치않은, 나혜석> <두뇌수술> 외

3



악마선생 Mr.Devil

지승태 Ji Seung-tae

연극 <2019 영지> <여향> <하시마 행간의 사람들>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도데의 풍차편지> <hear my
song> <눈꽃의 계절> <어림없는 청춘> 외



효정 Hyo-jeong

김별 Kim Byeol

연극 <모던컬타임즈> <녹색광선> <기억이란 사랑보다> <나는
인간> <클린하우스>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 <좋아하고 있어>
<죽음 혹은 아님> 외



악마선생 Mr.Devil

이종민 Lee Jong-min

연극 <낭독의 목적> <집에 사는 몬스터> <네가 있던 풍경>
<광인일기> <파란나라> <슬픈 인연> <로봇을 이겨라> <구직> 외



악마선생 Ms.Devil

최지혜 Choi Ji-hye

연극 <2019 영지>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어제의 당신이 나를 가로지를 때> <메디아>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wake up 햄릿> <어리> <맨 끝줄 소년>
<헤다 가블러> 외



악마선생 Mr.Devil

하재성 Ha Jae-seong

연극 <2019 영지> <이갈리아의 딸들> <광인일기> <파란나라>
<일일일일> <망각댄스_세월호편> 외

마녀들은 세상을 계속 뒤집어!

작가의 글/허선헤

중학생 때 듣고 ‘와 멋있다!’ 하면서 당장 일기에 적었던 말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살면 세상에 적응하고 비합리적으로 살면 세상을 뒤집는다.’

그때의 저는 남들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미래에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다 똑같아진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왠지 저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독특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를 겪으면서 세상을 뒤집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을 뒤집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할 일은 그들을 지우지 않고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거꾸로 뻗어나가고 있는 수많은 영지들, 그들에게 쥘한 환호와 무지갯빛 페스티벌을 바치고 싶습니다.

허선헤 Heo Seon-hye

작가

연극 〈2019 영지〉 〈햄스터 살인사건〉
〈먼지회오리〉 외

영지: 내 이야기 한 번 들어볼래?

연출의 글/김미란

김미란 Kim Mi ran

연출가

연극 〈낭독의 목적〉 〈2019 영지〉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극단 창업교육 훈련 참여자 입장을 중심으로〉 〈박스 안에서〉 〈좋아하고있어〉 〈어항〉 〈갈매기B〉 〈구직〉 〈사랑과 교육〉 〈간이연극:그레고르 참자〉 뮤지컬 〈미스터코트〉 작 외

2018년부터 3년간 매년 영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그 영지’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친구들을 만나 온 힘을 다해 놓니다. 친구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영지의 아지트로 들어왔고, 이들은 함께 놀며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마녀는 왜 마녀일까? 나는 혹시 마녀일까? 마녀는 어디서 왔을까? 마녀는 결국 어떻게 될까? 대답은 그녀들의 놀이와 이야기 속에 조금씩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번에 결론 나지 않고, 조금씩 만들어져갑니다. 놀이와 이야기가 계속,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올해는 정말 먼 길을 돌아가며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늘 먼저 제안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스탭들, 즉흥이 쉽지 않은 배역임에도 2주간 즉흥을 하며 극 전체의 분위기와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찾아준 배우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많은 영상을 찍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영지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영지를 공연할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국립극단 잔디밭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극장 안에서 다 같이 네모의 꿈을 때창 해주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그들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무대 위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기약할 순 없지만,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냈을 친구들과 함께 이 공연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4

5

세상에서 제일 큰 심장과 폐와 튼튼한 뼈를 찾는 마녀 이야기

〈영지〉재공연이 올라간다. 초연은 지난해 소극장판에서 올라갔다. 이번 공연은 백성희장민호극장에 올라간다. 1년만의 재공연이다. 아주 작은 소극장에서 조금 더 넓은 극장으로 바뀌고, 가장 먼저 배우가 보장되었다. 영지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초연과 달리 영지가 마음껏 움직이고 공간이 뿔뿔이는 서커스와 같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오디션도 진행했다. 577명이 응모한 오디션을 통해 새롭게 영지가 캐스팅되었다. 영지와 소희·효정의 세 친구로 박세인, 경지은, 김별 배우가 새롭게 캐스팅되었다. 악마선생들 역할에도 전선우, 지승태, 최지혜, 하재성 배우 외에 이종민 배우가 새롭게 합류하여 악마선생들이 3명에서 5명으로 보강되었다.

재공연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공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마지막 장면에서 영지가 무대에서 퇴장한 후에 국립극단 마당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나 공연을 완성하는 장면을 의도했지만 극장 운영상 여건이 여의치 않아 끝내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무대에서 사라진 영지로 이야기가 끝나면서 영지를 이 세계에서 추방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시각의 평가도 많았다. 2019년 12월 13일 대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공연의 방향설정을 위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2020년 3월 23일 배우들과의 첫 연습 이전에 공식적으로는 6회, 비공식적으로는 수차례 대본회의가 진행되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 이 과정에서 허선헌 작가는, 영지는 이 무대 ‘안’에 존재해야 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던졌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영지가 만들어내는 ‘현재’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지의 ‘미래’ 모습을 비로소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본회의 초반, 작가와 연출가는

드라마투르그의 글/김옥란

지난해 〈영지〉공연이 끝난 후 2019년 6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현대무용가 안은미 전시회 〈안은미래〉전을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다. 〈영지〉재공연 아이디어 회의를 위해 작가와 연출가가 동시에 안은미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각자 안은미 전시회를 다녀온 것은 우연의 일치였지만, 뼈뼉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영지의 이미지로 안은미 춤의 이미지와 적극적으로 작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1살 영지가 59세 안은미와 연결되면서 좁은 병목안 세상에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영지가 비로소 새로운 문을 찾아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지는 계속 자랄 것이고 자기 목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어른이 될 것이다.

현대무용의 최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한편, 김미란 연출가는 인디밴드 이날치의 음악 〈범 내려온다〉와 〈어류도감〉을 들려주었다. 이 음악들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재해석한 장영규 음악감독과 다섯 소리꾼들이 함께 한 판소리와 밴드 음악을 결합한 작업들이다. 파도소리가 들리고 자라 별주부의 꼬임에 속아 바다 속으로 들어간 토끼가 도미와 오징어와 가오리 등 각종 물고기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어류도감〉의 음악은 영지와 악마선생들이 처음 만나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첫 장면과도 잘 맞아 떨어졌다. 여기에 이윤정 안무가가 움직임으로 참여하면서 영지와 악마선생들의 놀이가 역동적이면서 해학적인 놀이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윤정 안무가는, 혀의 뿌리가 몸 전체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움직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무용극 〈설근체조〉로 지난해 춤비평가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목안 영지 이야기, “모두 환생!”

병목안은 영지가 사는 동네 이름이다. 작가가 살았다는 실제 동네 이름이기도 하다. 공연에선 병 안에 들어선 것처럼 작은 동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병목안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마치 아주 오랜 옛날이야기와 같은 노래 〈서울의 찬가〉를 패러디했다. 서울의 희망을 노래했던 1969년의 〈서울의 찬가〉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니 새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영지가 병목안에서 만드는 새로운 이야기들과 노래들은 이 다음 시대에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무대 공간은 영지의 아지트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지는 마녀의 눈에만 보인다는 악마선생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논다. 영지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마녀’로 불린다. 악성 루머의 시작은 영지가 장난으로 친구 상호에게 술을 먹였던 일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영지와 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오늘은 영지의 아지트에 소희와 효정이 찾아왔다. 오늘따라 소희는 학원가는 봉고차를 타지 않았고, 병목안 홍보송 모델 효정은 피곤하고 지친 채 오늘은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 영지는 효정이를 위해서 ‘효정이 말’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고, 소희를 위해서 ‘해골놀이’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준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녀 마무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효정이는 “어른들이 하도 영지, 영지하길래 이상한 앤 줄 알았고”, 소희는 꿈속에서 영지가 “진짜 괴물처럼” 나왔다고 말한다. 영지는 만화나 영화에서 무서운 괴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죽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걸 볼 때 같은 편인 척 살살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게 더 무섭다고 말한다.

영지와 소희와 효정이는 친구가 되었다. 소희와 효정이에게도 악마선생들이 눈에 보인다. 영지와 소희와 효정이는 〈네모의 꿈〉을 목청껏 부르며 세 마녀처럼 빙빙 돌며 춤을 춘다. 악마선생들도 함께 춤춘다. 아이들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두근두근 뛴다. 아이들은, 병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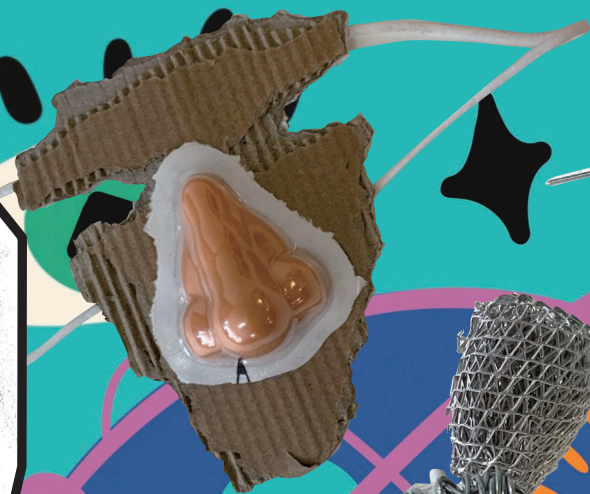
해골놀이에서 뜯겼던 심장을 마녀의 주문으로 다시 불러낸다. “불러오자 불러오자 심장을 불러내자, 불러내자, 불러오자 불러오자 심장을 불러내자.” 목청껏 주문을 외운다. 세 아이들은 마녀처럼 큰 힘을 얻었다. 영지와 아이들, 악마선생들의 마지막 놀이인 ‘병목안 긴급회의 놀이’에서 영지는 자신이 마녀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른들은 마녀의 존재를 부정한다. 병목안에 마녀는 없고, “있어도 없다”는 것이다. 영지는 “마녀는 세상을 계속 뒤집는다”고 말한다. “난 점점 더 비뚤어지고” 어떤 것이 똑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 계속 묻는다.

‘병목안 놀이’ 속에서 어른들은 마침내 마녀 화형식을 준비하지만, 더 힘 센 마녀로 스스로의 존재를 알아본 영지는 병목안을 “모두 환생”시키는 환생식으로 바꾼다. 마녀는 불타 죽지도 않고, 악마선생들에게 배운 주술로 마을을 다시 살려낸다. “난 언젠가 세상에서 제일 큰 심장과 폐와 튼튼한 뼈를 훔칠 거야.” 영지는 항상 뼈뼉하게 고개를 까딱이고, 꿀렁꿀렁 수영하듯이 운동장 트랙을 벗어나고, 우주 속에서도 계속 헤엄을 치는 상상을 한다. 〈영지〉의 무대 컨셉은 수영장이다. 수영장의 무대 컨셉은 직접적으로는 영지의 ‘아이 물고기’ 이야기로부터 나왔지만, 송성원 미술감독은 이 공간을 “다른 중력이 가능한 공간”, 지금 이 공간의 중력을 깨면 다른 우주가 보이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다시 해석한다. 영지의 교실과 운동장과 아지트는 영지가 “세상에서 제일 큰 심장과 폐와 튼튼한 뼈”를 가질 때까지 마음껏 디디고 서고, 뒤집어서 걸어 다니는, 세상에서 제일 큰 놀이터가 될 것이다.

김옥란 Kim Ock-ran

드라마투르그, 연극평론가,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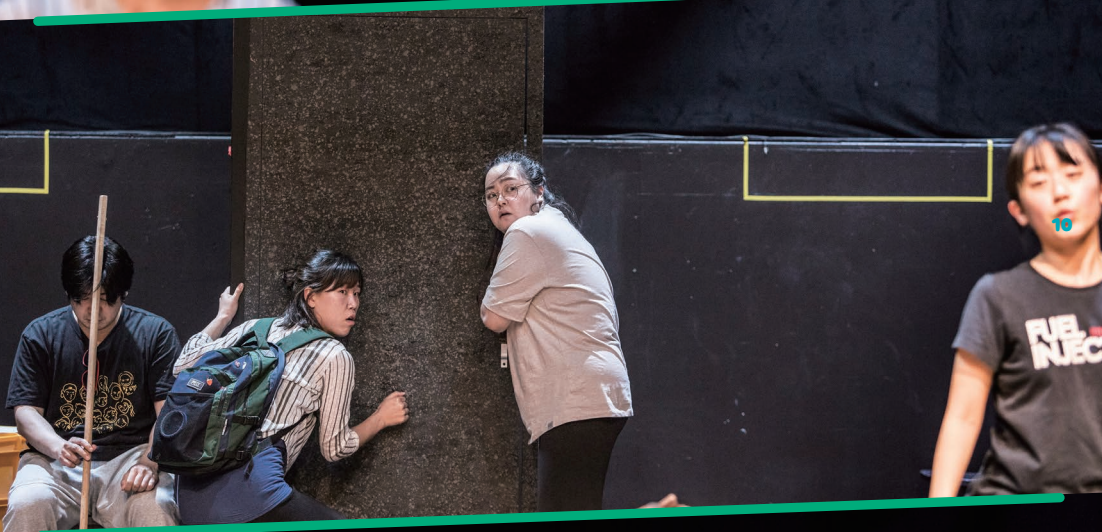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레슬링 시즌〉 〈국물 있사옵나〉 〈위대한 놀이〉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채권자들〉 〈봄날〉 외 저서 〈우리시대의 극작가〉 〈한국연극과 드라마투르그〉 외 평론집 〈백도의 무대, 영도의 글쓰기〉 〈레드와 블랙〉 외



연습스케치



연습스케치



레파초파 유랑극단의 해적방송이 시작됐다. '영지'들, 어딴나?

긴급! 비(非)대면 연극놀이로 전환, <영지를 찾아라!>의 탄생

예술교육팀은 2020년 2월부터 학교 섭외 및 참여자 모집과 프로그램 구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중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연극놀이 <영지를 찾아라!>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레파초파 행성에서 영지의 신호를 받고 지구에 온 유랑극단과 금융아파트에 사는 '영지들'의 극적인 만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짧지만 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술교육
이수연, 박영,
이향은, 김연준,
최은정

리서치
손서희

정리
박영

유튜브 연극놀이, <영지를 찾아라!> 활동 개요

4월 3일	<영지를 찾아라!> : 패키지 소품 발송
4월 8일	<영지를 찾아라!> : 유랑극단의 1편 영상 송출
4월 10일	영지들의 응답 영상 ① “나를 소개합니다” : 명함 만들기
4월 13일	<영지를 찾아라!> : 유랑극단의 2편 영상 송출
4월 16일	영지들의 응답 영상 ② “이야기를 들려줄게” : 오브제로 이야기 만들기
4월 17일	<영지를 찾아라!> :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기” 1차 발송
4월 20일	<영지를 찾아라!> : 유랑극단의 3편 영상 송출
4월 23일	영지들의 응답 영상 ③ “연기를 이렇게 해봐” : 지구 말 대사 들려주기
4월 27일	<영지를 찾아라!> : 유랑극단의 마지막 영상 송출
4월 28일	<영지를 찾아라!> : “나만의 이야기책 만들기” 2차 발송
5월 1일	청소년극 <영지> 공연 초대 영상 송출
5월 6일	영지들의 응답 영상 ④ “그동안 즐거웠어” : 마지막 인사

12

13

금융아파트에 사는 '영지'들을 소개합니다. '금융아파트'는 <영지를 찾아라!> 연극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입니다.



유랑극단

유랑극단

‘영지’들의 이야기_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철사, 조개껍질, 귀마개, 점토 등을 이용해 이야기 만들기

“엄마, 우리는 집이 왜 없어요?” 머쉬룸과 공차는 버섯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애들아 왜 싸워? 무슨 일이니? 그러지 마. 너희 원래 친구였잖아.



괴물이 나타났다! 저 괴물은 아마도 브라키스타우로스의 화석 같아요!! 화석이 깨어난 거예요!!



안녕, 나는 호빵맨이야. 오늘은 바다에서 놀고 싶어서 오랜만에 바다에 왔어. 해초 길을 따라가면 육지에 도착하나? 한번 가볼까?



“황금 버섯을 찾으면 얼굴을 찾을 수 있대요!” 물고기의 말을 들은 얼굴 없는 마법사는 너무 기뻐서 강충강충 뛰었어.



나는 너의 눈이 커서 좋고 입꼬리는 두꺼워서 좋고 너의 피부는 알록달록해서 좋은 거 같아. 정말이야.



나는 뭐든지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음식도 며칠, 몇 달 몇 년을 먹어도 먹을 수 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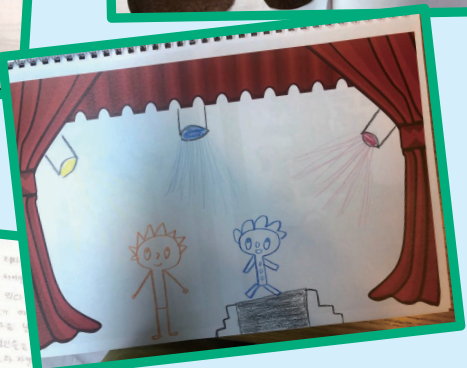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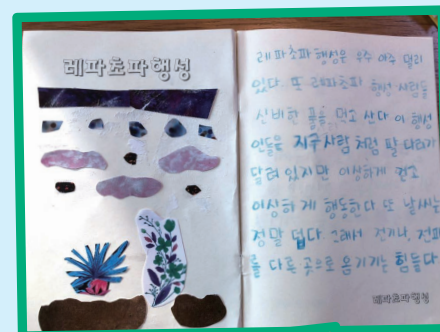


할아버지 제가 이 인형 다 가져가도 돼요? 어? 왜 이 인형이 여기 버려져 있지? 내가 데려가야지~룰루룰루~



‘영지’들의 이야기_나만의 이야기책 완성!

유튜브 연극놀이 경험에 자신만의 상상을 덧붙여 이야기책 완성하기





16

잠깐! 하나 더, 배우 워크숍!

배우 워크숍 진행 개요

진행:박영

4월 2일	배우 워크숍 ① : 놀이하는 신체, 하얗게 불태웠다!
4월 9일	배우 워크숍 ② : 놀이하는 연극, 연극하는 놀이

청소년의 신체성과 놀이성, 바로 내 안에 있다!

- 놀이 에너지 끌어올리기
- 놀이의 역동적인 흐름 경험하기
- 놀이 안에 담긴 연극적인 요소 발견하기

예술교육 및 리서치 참여

[예술교육]

성윤지, 이서원, 황세진, 황지원, 황혜지(경복초 5)
정지우(경복초 6)
오지율(서울신가초 6)
정은호(푸른숲발도르프학교 6)
정지우(경복초 6), 정현서(성리중 1)
협력교사-이정수(경복초)

[리서치]

부천양지초등학교 5-6학년(49명)
협력교사-김은빈

스태프

작

허선훤 Heo Seon-hye
* 프로필 4페이지

연출

김미란 Kim Mi ran
* 프로필 5페이지

드라마투르크

김옥란 Kim Ock-ran
* 프로필 7페이지

미술감독·무대

송성원 Song Sung-won
연극 〈영지〉 〈로테르담〉
〈음악극 말발라소〉
〈제르미날〉 〈사랑과 교육〉
〈구직〉 〈갈매기B〉 〈좋아하고 있어〉 〈이야기넷〉 〈탄소리판〉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뮤지컬 〈지하철1호선〉
오페라 〈썬타는 박사장 김들이기〉
무용 〈비극·내일을 위한 우화〉 〈창세무가〉
전시 〈No Title〉

조명

박유진 Park Yu-jin
연극 〈마트로시카〉
〈육방이론-배반의장미〉
〈2019 영지〉 〈넓은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출춘다〉 〈갈 수 없는 불꽃〉
〈스페이스의여왕〉
〈조앤스칼렛〉 〈분장실〉
〈오를라〉 〈카논-안티고네〉
국악극 〈꼬꼬만냥〉
〈자라는자라〉
판소리극 〈환상노정기〉
아동극 〈날날공장나라〉
〈별별왕〉 〈마프와신기한들〉

음악

김선 Kim Sun
연극 〈과부들〉 〈이인실〉
〈이영녀〉 〈실수연발〉
〈오슬로〉
영화 〈전우치〉 〈차이나타운〉
〈비밀은없다〉 〈배심원들〉
〈이타미준의 바다〉

오브제

이지형 Lee Ji-hyung
연출 및 제작 〈감탄사, 언어의 관찰〉 〈기존의 인형들〉
〈인간장수〉 〈인간장수를 모십니다〉
무대미술 및 인형 〈뮤지컬 빅피쉬〉 〈대신목자〉
〈2019 영지〉 〈아방가르드 신파극〉 〈공상물리적 춤〉
〈다페르티투스튜디오〉
〈마타리키〉 〈엄마이야기〉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
〈알사랑〉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외

의상·소품

이은경(EK)
Lee Eun-Kyung
연극 〈조치원 해문이〉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2019 영지〉 〈닭꾸우스〉
〈데미안 라이브〉 〈위험한 실험실 B-123〉 〈우산 도둑〉
〈드림타임〉
뮤지컬 〈앤ANNE〉
〈야조:왕의길〉

음악

장영규 Jang Young Gyu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열굴도둑〉 〈콘서트-동요의〉 외
영화 〈배심원들〉 〈황거〉
〈봉오동전투〉 〈판소리북서〉 외

음악

김선 Kim Sun
연극 〈과부들〉 〈이인실〉
〈이영녀〉 〈실수연발〉
〈오슬로〉
영화 〈전우치〉 〈차이나타운〉
〈비밀은없다〉 〈배심원들〉
〈이타미준의 바다〉

사운드

목소 Morceau J. Woo
연극 〈피어리스: 더 하이시클 맥베스〉 〈Tribes〉
〈인정투쟁: 예술가 편〉
〈스푸트니크〉 〈신토불이 진품용품〉 〈너에게〉 〈2019 영지〉 〈7번 국도〉 〈사물함〉
〈좋아하고있어〉 〈고등어〉 외
미술 〈게도연극〉
〈Anomalous Fantasy〉
영화 〈시 읽는 시간〉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외

움직임

이윤정 Lee Yun-jung
무용 〈설근체조〉 〈1과4, 다시〉
〈점과 척추 사이〉 〈On this in between moment〉
〈75분의 1초〉 〈사소한 공간〉
〈그늘에서 추다〉 외
연극 〈사물함〉 〈오렌지 북극곰〉 〈보이캣츠 걸〉
〈겨울이야기〉 〈더 파워〉
〈체액〉 〈구름〉 〈소년이 그랬다〉 외
음악극 〈노인과 바다〉
〈내이름은 오동구〉
〈나무의아이〉 외
전시 〈No Space, Just a Place-설근체조〉 대림미술관,
〈Megastudy-공부방〉
시청각, 〈동열거리고 일렁거리는-점과척추사이〉
백남준아트센터 외

예술교육 진행 및 기록

이향은 Lee Hyang-eun
연극 〈죽고 싶지 않아〉 〈2019 청소년극 창작벨트〉

예술교육 영상디자인

김연준 Kim Yeon-jun
연극 〈단편소설집〉 〈말피〉
〈국경의 아이들〉 〈벤트〉
〈나이팅게일의 소리〉 외
무용 〈안티고네〉
국악 〈All for One, One for All〉 〈순백의 소리〉 〈청이, 눈 속의 아버지〉

교육감독

이수연 Lee Su-yeon
산어린이학교, 법서학교
연극교사
연극 〈2019 영지〉
〈비행소년KW4839〉
저서 〈교사를 위한 어린이 연극수업〉 〈6학년〉 〈바람이 불어오는 숲에서〉

협력교사-김은빈

예술교육 리서치

손서희 Sohn Seo-hee
연극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2019 영지〉 〈소년이 그랬다〉 〈겨울 이야기〉
〈좋아하고있어〉

예술교육 드라마 리더

박영 Park Young
충북지역 예술강사 역량강화 통합예술교육 연수 강사
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_풀색놀이 특공대〉
〈용마경로복지센터 시니어 연극_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은평구립도서관_책, 연극과 놀이의 만남〉
영화 〈우리들〉 〈우리집〉
어린이 배우와 함께 하는 연극놀이 강사

예술교육 영상디자인

이향은 Lee Hyang-eun
연극 〈죽고 싶지 않아〉 〈2019 청소년극 창작벨트〉

예술교육 영상디자인

김연준 Kim Yeon-jun
연극 〈단편소설집〉 〈말피〉
〈국경의 아이들〉 〈벤트〉
〈나이팅게일의 소리〉 외
무용 〈안티고네〉
국악 〈All for One, One for All〉 〈순백의 소리〉 〈청이, 눈 속의 아버지〉

조연출

박한서 park Han-seo
연극 〈2019 영지〉
〈모던컬타타임즈〉 외

17

만드는 사람들

출연

경지은, 김별, 박세인, 이종민,
전선우, 지승태, 최지혜, 하재성

스태프

작. 허선헤
연출. 김미란
드라마트루기. 김육란

미술감독·무대. 송성원
조명. 박유진
의상·소품. 이은경
오브제. 이지형
음악. 장영규, 김션
사운드. 목소
움직임. 이윤정
조연출. 박한서

교육감독. 이수연
예술교육 리서치. 손서희
예술교육 드라마 리더. 박영
예술교육 진행 및 기록. 이향은
예술교육 영상 디자인. 김연준
예술교육 기획. 최은정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나혜민
제작감독. 홍영진, 경은주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 임수연
음향오퍼. 이병석
무대크루. 김영주
의상진행. 신은혜
음향팀. 박상준, 김학준
조명 어시스턴트. 손민영
조명팀. 이지환, 이보경, 나현태,
정성민, 김종훈, 김두리
무대제작. 세원무대미술 (대표:신한영)
의상·소품제작.
이케이코스튬(대표:이은경)

메인 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박신우)

응용 디자인.

스튜디오 불빔 (대표:김은홍)

홍보/공연/연습사진.

그린비(장성용, 정원균)

온라인 생중계 및 기록영상. 율하우스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 인쇄. 인타임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조영채, 이정현, 이송이
마케팅. 변정원,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경선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7기. 김가은,
김현기, 심하린, 이화승, 정예림, 현석현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효진
하우스 매니저. 김나래, 이기쁨
안내원. 김성주, 이지은, 이해조,
정진영, 김소희, 연하은, 이민경, 임지은

예술교육 및 리서치 참여

예술교육

성운지, 이시원, 정지우, 황세진,

황지원, 황해지(경북초)

오지율(서울신가초)

정은호(푸른숲발도르프학교)

정현서(성리중)

리서치

부천양지초등학교 5~6학년(49명)

협력교사-김은빈

프로그램북 제작

기획/편집. 김미선, 권은지

디자인. 데저트팜(대표: 양으뜸)

‘웰컴 투 영지월드’ 일러스트. 조성정

즐거리 번역. 알리사 김

인쇄. 미림아트

제작총괄. 김성제

프로듀서. 김미선

제작진행. 권은지

제작.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18

19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김영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박으뜸 공연자료 관리

조유림 작품개발·출판

최우정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김옥경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소영

이정민 최유진 프로듀서

박서영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이송이 조영채 최윤영 홍보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변정원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이경선 청년인턴

무대가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경은주 이승수 무대제작감독

음향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의상감독

백혜원 김민주 김세희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김시내 비서·경영공시·윤리경영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정 예술교육

김연경 작품개발·운영

권령아 연수단원

2020 시춘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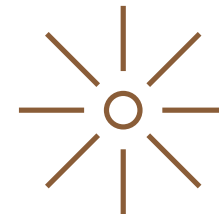




내 비밀공간은 창고 안.
평범한 곳처럼 생겨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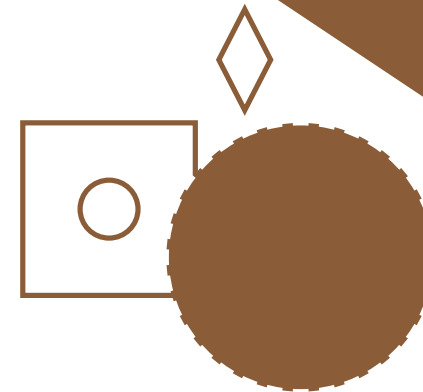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모든 사람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그 태생부터 다가가는
어린이청소년극.
예술이 일상으로,
일상이 예술로의 첫 걸음.
즐겁고, 쉽고, 깊게!

그 시작과
인식의 변화를
바로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청소년극을 만듭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소장 김성제)는 어린이청소년극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청소년 관객층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극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청소년극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극 제작 및 지역공연, 작품개발 및 연구가 있으며,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극 창작벨트〉, 〈작은극장〉, 예술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청소년예술가탐색전〉 등이 있다. 주요 청소년극 레퍼토리로 〈소년이그랬다〉, 〈레슬링 시즌〉, 〈빨간 버스〉, 〈타조 소년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비행소년 KW4839〉, 〈죽고 싶지 않아〉 등이 있다.

국립극단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